SOCIETY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싱크홀 사고 감소세 뚜렷
광산구 "선제적 행정 노력"

지반침하(싱크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광산구가 선제적 대응과 과학적 조사로 싱크홀 발생 건수를 줄여나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27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반침하 사고의 주요 원인이 하수관 손상이라는 점에 주목해 2023~2024년 2년간 총 5억6000만원을 투입해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한 지표투과레이더(GPR)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확인된 지반 공동현상(빈 공간)은 127개로, 광산구는 95건을 즉각 정비하고, 32건에 대해서는 별도 공사를 진행하는 등 전수 조치했다.

또 2억2000만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CCTV 조사, 연막시험 등 하수도 오접조사 용역을 진행해 공동현상 발생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선제적 조치로 광산구의 지반침하 사고는 뚜렷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발생한 60건의 싱크홀을 살펴보면 2020년 이전에 발생한 게 46건으로 77%를 차지했다. 2023~2024년은 9건에 불과했다. 특히 GPR조사 이후인 2024년에는 1건뿐이었다.

광산구는 하수관로 총연장, 도로면적, 행정구역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지반침하 발생 건수가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예방 조치를 하고 있다. 임정호 기자

국가유산 보며 골목여행…충장·금남로 '활기'

5·18민주광장·서석초 일원 국가유산야행 등 행사 다채
충장 'K-스타 챌린지' 호응 빛의 읍성 등 야간경관 선사

지난 26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 일원에서 열린 2025 광주국가유산야행 '돌의(義) 시간' 행사에 참가한 임택 동구청장과 어린이들이 조선시대 의병복장을 하고 광장 주변을 행진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4월 마지막 주말 광주 충장로·금남로 일원에서 다채로운 축제가 잇따라 열려 시민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다.

27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충장로·금남로 일원에서 주말 동안 광주 국가유산야행, 충장 K-스타 챌린지, 충장골목여행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우선 지난 25~26일에는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돌의(義) 시간'이란 주제로 광주 국가유산야행이 열렸다.

광주의 백제시대부터 5·18민주화운동까지 이어지는 석실, 석등, 석탑, 성곽의 돌에 담긴 이야기와 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33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돌에 대한 이야기를 국가유산의 시대별로 전달하는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참여형 전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들으며 희망의 돌탑을 쌓는 VR 돌탑 멜로디, 분청사기·석등·석탑 만들기 프로그램 등이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지난 25~26일 학생독립존인 서석초등학교 정문 앞에서는 많은 시민이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을 배우는 연극에 참여해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최영섭, 장재성, 최원순 등 독립운동가에 대해 알아봤다. 굴렁쇠 굴리기, 제기차기, 투호 놀이, 사방치기 등을 체험하기도 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플라자 브릿지에서는 '광주 기후 변화 큰 장'이 열렸다.

이곳에서는 바느질과 시계, 자전거 등 수리·수선 체험 등으로 다시 쓰는 복원 문화에 대해 경험할 수 있었고, 지난해 야행에서 사용한 현수막을 재활용한 가방, 지갑 등 생활소품도 전시했다.

26일 오후 충장로 우체국에서는 K-POP 경연대회인 '충장 K-스타 챌린지'가 진행돼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충장 K-스타 챌린지에는 10대부터 30대까지 10개 팀이 나서 그동안 갈고 닦은 K-POP과 트로트 실력을 선보였다. 관객들은 휴대전화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거나 노래에 맞춰 손뼉을 치는 등 응원했다.

윤연준씨가 대상을 차지하며 '4월의 충장 K-스타'에 이름을 올렸다.

충장상권상권활성화추진단이 준비한 충장골목여행(야경편:빛나는 충장)은 광주 금남로·충장로의 야경을 만끽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참가자 18명은 희경루를 시작으로 금남공원, 어린이미디어복합문화센터, 5·18민주광장 빛의 음악분수, 영상복합문화관인터렉비트 월, 빛의 읍성, 전일빌딩245 등을 산책하며 마을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광주 야경을 느꼈다.

특히 빛의 읍성, 5·18민주광장 분수대 빛의 음악분수의 화려한 조명이 참여자의 시선을 붙잡았다.

동구 관계자는 "충장로는 대도시의 화려함과 골목의 소박한 정취가 공존하는 매력 넘치는 장소다"며 "많은 사람들이 충장로·금남로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콘텐츠를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북구, '더현대 광주' 인허가 지연 주장 반박

복합쇼핑몰 입점 시 교통·환경 문제 선제적 대응
"시민생활 밀접…신중한 검토는 정당한 행정 행위"

광주 북구가 최근 '더현대 광주'의 인허가가 행정기관의 월권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신정훈 북구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27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24일 신정훈 북구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더현대 광주의 인허가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검토와 불필요한 서류보완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구는 "더현대 광주의 인허가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역에 처음 들어서는 초대형 복합쇼핑몰로 교통·재해·환경 등 시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법령에 따라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북구는 지난달 9개 부서, 16개 팀으로 TF팀을 구성했고, 모든 과정은 국토계획법과 교통영향평가 지침 등 법적 기준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업자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에는 프로야구 경기가 있는 날의 교통량과 누문 구역, 양동3구역 등 다수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보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는 연간 70회가 넘는 경기가 열리는 광주의 대표적인 교통혼잡 유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통량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보완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더현대 부지 반경 2㎞ 내 약 1만6000세대 규모의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어 향후 교통난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시민의 불편과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북구 관계자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교통, 재해, 환경 분야에 대한 검토와 보완 요청은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행정행위다"며 "사업 지연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세대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9년 유·스퀘어 문화관이 개관할 당시 일대의 교통이 마비됐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더현대 광주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익 증진을 넘어 광주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속히 검토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구는 건축허가와 관련해 35개의 유관기관,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완사항 이행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즉시 건축허가를 처리할 계획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전남 서부권 공립특수 '온미래학교' 신설 확정
도교육청, 교육부 승인 완료…2029년 개교 예정

전남도교육청이 전남 서부권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공립특수학교 신설 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지난 23~24일 열린 '2025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전남교육청이 제출한 (가칭)'온미래학교' 신설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신설 계획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꾸준한 증가에 대응하고, 열악한 서부권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남 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는 16.2% 증가했으며, 특히 목포·무안 지역은 2020년 대비 26.8%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부권에는 특수학교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특수학교 신설을 본격 추진했다.

(가칭)온미래학교는 옛 일로초 죽산분교장 부지에 고등학교 6학급, 전공과 8학급 규모로 조성되며, 총 사업비는 약 450억원이다. 오는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해당 부지는 남악신도시 3단계 개발 예정 택지지구 내에 위치해, 도심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특수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학교 신설과 함께 서부권의 기존 사립 특수학교는 유·초·중학교 학급을 확대 운영하고, (가칭)온미래학교는 고등학교 및 전공과 과정을 맡는 방식으로 특수교육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사립교직원 부패방지교육 강화
시교육청, 의무교육 대상 확대

광주시교육청이 공직자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교육을 강화한다.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부패방지교육' 의무교육 대상을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등으로 확대했다. 또 4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고위직 청렴리더십 향상 교육'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부패방지교육은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렴정책 등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더불어 본청을 포함한 산하기관,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등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청탁금지법 운영실태를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적극 조치한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